

2024. 1. 28. 오후 1 시, In-Person & YouTube Online

블랙스버그한인교회 주일예배

설교: 임동진

본문: 사무엘상 1 Samuel 8:4-9

제목: 하나님을 버린 백성의 말

본문 읽기

(표준새번역) 8:4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ESV) 8:4 Then all the elders of Israel gathered
together and came to Samuel at Ramah

8:5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8:5 and said to him, "Behold, you are old and your
sons do not walk in your ways. Now appoint
for us a king to judge us like all the nations."

8:6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 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께 기도를
드렸더니,

8:6 But the thing displeased Samuel when they
said, "Give us a king to judge us." And Samuel
prayed to the Lord.

8:7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 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8:7 And the Lord said to Samuel, "Obey the voice
of the people in all that they say to you, for
they have not rejected you, but they have
rejected me from being king over them.

8:8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8:8 According to all the deeds that they have done,
from the day I brought them up out of Egypt
even to this day, forsaking me and serving
other gods, so they are also doing to you.

8:9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 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 주어라."

8:9 Now then, obey their voice; only you shall
solemnly warn them and show them the ways
of the king who shall reign over them."

합리적이고 합당한 백성의 말

4 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 갑니다.

(표준새번역) 8:4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ESV) 8:4 Then all the elders of Israel gathered together and came to Samuel at Ramah

5a 절. 백성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8:5a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

8:5a and said to him, "Behold, you are old and your sons do not walk in your ways."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다르다는 내용은 앞 문맥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1 절, 사무엘은 늙었고,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8:1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8:1 When Samuel became old, he made his sons judges over Israel.

2 절. 그 아들들은 요엘과 아비아였고, 그들은

브엘세바(이스라엘의 최남단)에서 사사로 일합니다.

8:2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8:2 The name of his firstborn son was Joel, and the name of his second, Abijah; they were judges in Beersheba.

3 절.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 사무엘처럼 좋은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 치우치게 판결하고, 백성들은 요엘과 아비야 때문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갔던 겁니다.

8:3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8:3 Yet his sons did not walk in his ways but turned aside after gain. They took bribes and perverted justice.

그리고는 5b 절에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8:5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8:5 and said to him, "Behold, you are old and your sons do not walk in your ways. Now appoint for us a king to judge us like all the nations."

요엘과 아비야는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요엘과 아비야를 존경할 수 없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합당한 말에도 사람 마음은 다칩니다. 6 절. 백성들(장로들)이 왕을 세워 달라는

말에 사무엘 마음이 상합니다. 자기가 평생을 헌신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일했는데, 아들들이 잘못했다고 사사 제도를 없애고 왕 제도를 만들자고 말한 겁니다.

8:6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 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께 기도를 드렸더니,
8:6 But the thing displeased Samuel when they said, "Give us a king to judge us." And Samuel prayed to the Lord.

그런데, 여러분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는 것이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 안에서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 정치, 기업, 학교 등에서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을 따라 가야 공정하고 올바른 것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합당한 그들의 말 뒤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진짜 모습,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십시오.

숨겨진 백성의 영적 상태

그들은

✓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사람 왕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에 벌써
율법으로 왕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신 17:14-15 절

**신명기 17:14 "주 너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너희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Deuteronomy 17:14 "When you come to the land that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and you possess it and dwell in it and then say, 'I will set a king over me, like all the nations that are around me,'

**17:15 너희는 반드시 주 너희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너희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한다. 너희는 겨레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겨레가
아닌 외국 사람을 너희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17:15 you may indeed set a king over you whom the Lord your God will choose. One from among your brothers you shall set as king over you. You may not put a foreigner over you, who is not your brother.

하나님은 사람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미 지침과
규례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면 언제든지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문제는 사람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점입니다.

7 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들은 나를 그들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았다’라고 진단하십니다.

8:7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 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8:7 And the Lord said to Samuel, "Obey the voice of the people in all that they say to you, for they have not rejected you, but they have rejected me from being king over them.

8 절. 그들은 이집트(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지금까지 하는 일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사기가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다가 이방 나라의 괴롭힘을 당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선 그들을 구해줍니다. 하지만 금방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괴롭힘

당하고,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시 구해 주십니다. 40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8:8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8:8 According to all the deeds that they have done, from the day I brought them up out of Egypt even to this day, forsaking me and serving other gods, so they are also doing to you.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 말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대로 행동하였다.”(사사기 17:6, 19:1, 21:25)

합리적이고 합당한 선택인 것 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 왕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을 뿐 아니라,

✓ 백성의 책임을 버렸습니다

20 절. 그들은 이방 나라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방 나라처럼 대신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가줄

사람이 필요했고, 대신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고, 대신 힘쓰고 애쓰고 욕먹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삼상 8:20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1 Samuel 8:20 that we also may be like all the nations, and that our king may judge us and go out before us and fight our battles."

자기들은 책임지고 싶지 않고, 자기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고, 자기들은 손해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본래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과 지파의 족장들과 가문의 어른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죽을 수도 있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하고 싶어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전쟁에 나간다면 누가 흔쾌히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왕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신 17:18 절, 왕위에 오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복사하여다가,

신명기 17:18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복사하여,

Deuteronomy 17:18 "And when he sits on the throne of his kingdom, he shall write for himself in a book a copy of this law, approved by the Levitical priests.

19 절.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신명기 17:19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한다.

Deuteronomy 17:19 And it shall be with him, and he shall read in it all the days of
his life, that he may learn to fear the Lord his God by keeping all the words of this law
and these statutes, and doing them,

즉, 세상 왕은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겠지만, 이스라엘의 사람 왕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신 17:16 절. 군사력을 증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철병거와 기병대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신명기 17:16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된다. 이는 주께서, 다시는
너희가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Deuteronomy 17:16 Only he must not acquire many horses for himself or cause
the people to return to Egypt in order to acquire many horses, since the Lord has said
to you, 'You shall never return that way again.'

세상 왕은 권력을 휘두르고, 부를 축적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약자와 약한 나라를 착취하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신 17:17 절. 부인도 많이

두면 안되고, 은과 금도 많이 모아서는 안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 왕은 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17:17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됴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

Deuteronomy 17:17 And he shall not acquire many wives for himself, lest his heart turn away, nor shall he acquire for himself excessive silver and gold.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편으로 인간 왕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은 합리적이고 합당해 보였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마음은 자기들의 책임을 버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이시대 교회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내 죄를 사하신 구원자라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나의 모든 생각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죄를 사하신 구원자의 자리에만 계시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우기는 교인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람들은 책임지고, 수고하고, 자기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신앙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찾고, 다 갖추어진 교회를 찾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아무런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의 내용만 전하고,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말하면 좋아하지만, 성도로서 섬기고 봉사하고, 책임지고,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면 싫어합니다. 헌금 설교하면 노골적으로 화내고, 십일조 하라고 하면, ‘목사님이 돈 설교 너무 많이 한다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돈이 가는 곳이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선택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봉사하며 섬기고 계십니까? 작은 개척 교회, 일 많이 해야 하는 교회, 돈이 부족하고 일꾼이 부족한 교회에도 주께서 가라하면 기꺼이 가시겠습니까?

기도: 하나님 앞에서

- (고백과 인정)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되어 주소서.
- 나의 마음과 생각과 선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앉으시옵소서.
-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 (결단과 헌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혜택을 위해 내가 수고하고 손해보고 땀 흘리게 하소서.
- 나에게 주어진 섬김의 기회를 기쁨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이게 하소서.
- 나의 헌신과 헌금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소서.

소그룹에서 나눌 질문들

(2024.1.28 하나님을 버린 백성의 말, 사무엘상 8:4-9)

1. 사무엘의 아들들의 악행을 이유로 사사 제도를 없애고 왕을 세우자는 백성들의 말은 합리적이고 합당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의 삶 중에 그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며 토론해 봅시다)
2.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왕이 없어 자기 뜻대로 행동했다’(사사기 17:6, 21:25)는 사사기 시대와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은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3. ‘Sunday Christian 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며 토론해 봅시다.
4.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리(예: 교회 섬김이, 가장, 엄마, 교회 언니, 신앙 선배 등)에 더 성실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고, 나누어 봅시다.